

제 66 호  
2021.04.21.

# 가정통신문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안내

시흥가온중학교

교정의 꽃들이 활짝피어나는 아름다운 4월입니다.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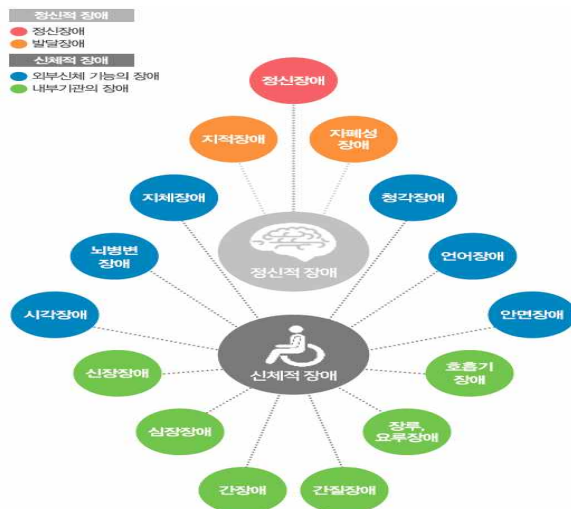
본교에서는 통합교육을 목표로 올해 2021학년도 학교 개교와 함께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으며,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통합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에 상관 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 2.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적어도 7가구 중에 1가구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 이상이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 ✓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없이 있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2021. 04. 21.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